



하노이지사

가상매장(Virtual 4.0)에서 장보기 시작한 베트남

현대화된 형태로 이행중인 베트남의 장보기

베트남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호치민, 하노이, 다낭과 같은 대도시 주민들은 Lotte Mart나 Vinmart, Big C 등 현대화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구매 역시 확산되며 가상매장이라는 형태까지 등장해 소매시장의 새 장을 열고 있다.

베트남 최대 기업 중 하나인 Vin Group이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을 시장문화에 도입, 가상매장(Vinmart 4.0)을 오픈했다. Vin Group의 발표에 따르면 'Vinmart 4.0'은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상품을 눈으로 보며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출범했으며 실제 대형마트에 서와 같이 배열된 800여개의 상품을 이미지화해 상품에 대한 신뢰와 구매의 편리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Ao(아오)라고 불리는 가상매장 QR코드 광고판을 2019년 3월부터 Vinmart 유통 애플리케이션인 Scan&Go와 연계해 시범운용 해왔고 현재까지 13개 지역, 73개 유통마트와 연계해 운용 중이다.

제품신뢰와 구매편의성 동시 제공

현재 Ao(아오)는 인구밀도가 높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사무실 밀집지역, 학교, 버스정류장 근처에 설치해 가상매장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빠른 배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대 2시간 안에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배송을 완료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상매장은 현재 약 800여개의 다양한 제품군을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필수소비상품, 편의상품, 건강상품]으로 세분화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첫 매장의 시장진출 이후 Vin Group은 속도를 내며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주요 거점 20곳에 가상매장을 설치했으며 베트남 전역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Key
Point

가상매장 시장
서둘러 진출 필요

- 4차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가상매장 물류체계가 베트남 전역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가상매장 시장에, IT강국인 한국의 대형마트들이 베트남 현지업체들보다 퀄리티 높은 시스템 개발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질 좋은 상품 및 수입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한국산 농식품을 가상매장에 진출시키는 전략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